

# “빅데이터·인공지능 접목 ... 헤지펀드 투자 수익률 높인다”

## 루크 엘리스 맨그룹 CEO 기조연설

“주식시장처럼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에서는 사람이 컴퓨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계 3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영국 맨그룹의 루크 엘리스 사장은 ‘ASK 2017 사모·헤지펀드 서밋’ 둘째날인 18일 기조연설자로 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기계학습) 같은 새로운 기술을 투자에 접목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 발달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정보를 활용해 투자 수익을 얻기가 어려워진 만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장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헤지펀드·멀티에셋’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빅데이터, 알고리즘 등을 활용한 시스템 투자에 관한 주제발표와 논의가 주를 이뤘다. 세계 27개국에서 1200여 명의 대체투자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이틀간 일정을 열던 ASK 서밋은 막을 내렸다.



### 헤지펀드 운용 경쟁력 알고리즘 활용에 달려

### 예측률 0.1%P만 높여도 수익률 극대화 가능

### 펀드 매니저 주식 매매도 빅데이터 활용하면 효과적

그는 “하루에도 수익 개씩 쏟아져 나오는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빅데이터 투자’다. 시장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실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투자가 유효한 이유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해 11월9일 하루 동안 27억 개의 데이터가 쏟아졌다.

엘리스 사장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 50%의 확률이 아니라

50.1%라도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면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카지노가 한 고객을 이길 확률은 50.1%에 불과하지만 오랫동안 여러 고객을 상대해 수익을 내는 것과 같은 원리다.

알고리즘 투자뿐 아니라 펀드매니저의 재량으로 사고팔 주식의 고르는 전략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과거에는 어떤 회사 제품이 잘 팔리는지 알기 위해 매니저가 직접 백화점을 찾아갔지만 최근에는 신용카드나 구글검색 데이터를 활용해 인기 있는 브랜드와 회사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다.

### 저렴한 헤지펀드 투자법

이날 ASK 서밋에서는 기존 헤지펀드보다 싼 가격에 효율적으로 헤지펀드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체 리스크 프리미엄’ 전략도 소개됐다. 최근 높은 수수료(운용수수료 2%, 성과수수료 20%)에 비해 수익률이 저조한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맨 그룹, 영국 울드뮤주얼 글로벌인베스터스(OMGI), 일본 니코에셋 매니지먼트, 미국 블랙록 등이 전략을 소개한 운용사만 4개에 달했다.

대체 리스크 프리미엄이란 헤지펀드 투자 전략 중 알고리즘을 통해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전략만 골라 적은 수수료(통상 1%)를 받고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올리버 리 OMGI 투자 이사는 “대체 리스크 프리미엄 전략은 통



ASK 2017-글로벌 사모·헤지펀드 서밋에서 리스크 관리 분야 세계적 석학인 필립 조라이온 뎀코 전무(미국 UC버번 교수)가 ‘헤지펀드의 리스크 관리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세게 27개국에서 1200여 명의 대체투자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ASK 행사는 이틀간 일정을 마치고 18일 폐막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계적 기법을 통해 시장 상황에 맞게 전략을 조정한다”며 “주식 채권 등 전통 자산과의 상관도가 낮아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낸다는 헤지펀드의 투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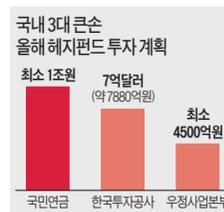
스티븐 모엘러 블랙록 아시아태평양 투자전략 전무는 “최근 헤지펀드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지난 5년간 6.5% 수준이던 헤지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이 향후 5년간 3.2%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투명성과 유동성을 높이고 수수료를 낮춘 헤지펀드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다.

유창재/김익환/김대훈 기자 yoochool@hankyung.com

## 큰손들, 헤지펀드에 올 2.2兆 투자 우정사업본부, 투자금 50% 확대

### 우정사업본부, 연말까지 운용규모 1.5조로 늘려

### 국민연금 1조원 이상 KIC는 7800억 추가 투자



까지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헤지펀드에 1조원을 투자하더라도 약 1조원을 추가로 쏟아부을 여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투자공사(KIC)는 지금껏 42억달러(약 5조 원)를 헤지펀드에 투자한 글로벌 헤지펀드업계의 ‘큰손’이다. 올해 7억달러(약 7800억 원)를 추가 집행할 계획이다.

“헤지펀드 투자 늘리겠다”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 큰손들의 관심은 ‘투자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고 답한 기관이 70%를 넘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20곳의 국내 연기금·공제회·보험사 최고 투자책임자(CI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 15곳 가운데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윤석균 회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 변화가 커지면서 헤지펀드에서 기회를 찾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기관투자자들은 올해 가장 선호하는 헤지펀드 투자전략으로 거시경제의 방향성에 투자하는 ‘글로벌매크로 전략’을 꼽았다. 이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사고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주식을 공매도하는 ‘주식숏소트 전략’ △인수합병(M&A) 같이 기업의 중요한 지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을 투자 기회로 삼는 ‘이벤트드라이브 전략’ △컴퓨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매매하는 ‘CTA 전략’ 등의 순이었다.

정영호/김대훈 기자 hugh@hankyung.com

## “헤지펀드 새 투자처 ... 인도에 주목하라”

### 조너선 캔디 그라티콜에셋매니지먼트 CEO

“세계 주요국 경기 부양 패러다임이 기존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재정정책 시행과 함께 투자 기회가 늘고 있는 인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조너선 캔디 그라티콜에셋매니지먼트 사장(CEO·사진)은 18일 ‘ASK 서밋’에서 이같이 말하고 “재정정책 확대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서 다양한 자산의 가치가 역동적으로 변하면서 매크로 전략을 활용할 기회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최근 펀드 멘탈(기초체력)에 기초한 투자 비중을 줄이고

### 재정정책으로 패러다임 변화 매크로 전략 활용 기회 늘 듯

따른 자산가격 변동을 노린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화정책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각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2015년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한 뒤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최근 양적완화 강도를 줄여가고 있다. 캔디 사장은 “지난해 1월 일 본 중앙은행의 마

### 매크로 전략

거시경제 상황을 분석해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 각종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 헤지펀드 투자 전략 중 가장 투자처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투자기법을 동원한다.

이러스 금리 도입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화정책 패러다임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특히 37억 명이 달하는 인구를 보유한 아시아 시장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매크로 전략 활용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0~2010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증가분에서 아시아 신흥

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였지만 2011~2020년에는 49%로 증가할 전망이다.

캔디 사장은 아시아에서도 인도를 주목할 만한 국가로 꼽았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강력한 재정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사. 인도는 2014년 모디 정부가 들어선 이후 외국인 투자 확대, 제조업 육성, 인프라 개발 등으로 대표되는 ‘모디노믹스(모디 정부의 경제정책)를 가동하고 있다.

캔디 사장은 현재 연 270억달러 수준에 불과한 인도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 규모가 2018~2020년 연 300억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그는 “재정정책 확대라는 새 패러다임이 수년간 주식시장 호황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 “행동주의가 기업 공격하는 건 옛말 저평가 기업 도와 투자가치 높여준다”

### 테드 문 메레드마운틴 전무

“행동주의(액티비스트) 헤지펀드가 기업을 공격해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옛말입니다.”

미국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 레드마운틴캐피탈파트너스의 테드 문 전무는 이른바 ‘액티비스트 펀드’의 전략 변화를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최근 행동주의 투자는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 짧은 기간에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드마운틴은 미국 소형(스몰캡) 상장사에 주로 투자하는 운용사다. 겨울용 방한 부츠인 ‘어그부츠’를 만드는 미국 신발 제조업체 대커스아웃도어 지분 3.3%를 보유

하고 있다. 문 전무는 레드마운틴이 투자한 미국 진공청소기 업체 아이로봇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아이로봇은 현금 창출 능력이나 재무 상태는 좋았지만 공급망 관리에 실패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다”며 “공급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투자원금 대비 연 15%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고 전했다.

소형 상장사가 대형주에 비해 매력적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소형주 지수인 러셀2000 소속 기업의 가치는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을 기준으로 볼 때 S&P500 소속 기업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에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연설에 쏟는 ‘헤지펀드·멀티에셋’을 주제로 18일 열린 ‘ASK 서밋’ 이틀째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 “변동성 큰 시기 ... ILS가 가장 적합한 투자처”

(보험연계증권)

### 스테판 크라우치 ILS어드바이저스 대표

“보험연계증권(ILS)은 요즘처럼 주요 자산의 변동성이 커진 시기에 적합한 투자처입니다.”

스테판 크라우치 ILS어드바이저스 대표는 18일 ‘ASK 서밋’에 연사로 나서 ILS의 매력을 이같이 밝혔다. ILS는 보험사의 보험 위험을 유가증권으로 유동화한 첨단 대체투자 상품이다. 지진 쓰나미 홍수 등 자연재해 관련 보험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대재해채권(катастро페 bond)이 대표적이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ILS 투자가 활발하다. 국내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ASK 서밋에서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초로 ILS 투자에 나섰다.

크라우치 대표는 “ILS는 주식이 나 채권 등 전통자산뿐 아니라 부동산 같은 대체자산과의 상관관계

도 낮다”며 “자산을 분산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ILS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만큼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평가다.

ILS는 만기 1년 미만인 자산이 전체 투자 대상의 90% 이상이다. 투자 기간에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3%에서 최대 15%에 달하는 연평균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